

박영자 세브란스 호스피스 자원봉사요원

“그 사람들의 사랑 때문에 합니다.”

돈을 버는 일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일도 아니고 늘 즐거운 일도 아니다.
아픈 사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니 괴롭고 슬프고 힘든 일이 그의 일이다.
언제나 이별을 한다. 박영자 씨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이다.

실은 요즘 며칠간 한 TV 방송국에서 그를 만나 인터뷰를 하자고 졸라댄다고 했다. 그는 인터뷰 요청을 사양했다 한다. 왜냐 했더니 “그냥 별로 내키지 않아서. 난 많이 알려지는 것도 싫고, 나 이상으로 미화되는 것도 싫고 과장되는 것도 싫어요.” 한다.

돈을 버는 일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일도 아니고 늘 즐거운 일도 아니다. 아픈 사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니 괴롭고 슬프고 힘든 일이 그의 일이다. 언제나 이별을 한다. 박영자 씨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이다.

왜 굳이 이런 일을 할까? 아니 어떻게 이 길을 선택하게 됐나. “78년도에 우연히 보호자가 없어서 병원에도 혼자 갈 수 없는 말기암 환자를 부탁 받고 도와주게 됐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89년 자원봉사자를 지원한 것이고 92년에 세브란스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받아 소속하여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별로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잘 할 수 있을 거라 여겼다.

>> 안내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친구로

“그런데 몸이 너무 힘든 거야. 실습을 갔는데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있었는데 일이 너무

고되고 몸이 견디지를 못하니 정신적으로 회의가 들었어요.”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다. 왜 해야 하나. 말하자면 수행 같은 그 일을 스스로에게 남득시킬 근거가 필요했다. 항암 치료로 머리가 빠지는 사람을 돌보면서 문득 ‘내가 도와줘야 한다’는 첫 번째 이유가 떠올랐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런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교만한 마음이었다. 그 다음 단계는 스스로를 여행가이드처럼 안내자로 여기는 일이었다. 죽음을 앞둔 이들의 손을 잡고 ‘여긴 돌, 여긴 물이 있다’ 알려주며 죽음의 문턱까지 안내해주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는 생각이었다.

이제 그것들은 그를 부끄럽게 한다. 98년 그가 ‘봉래 언니’라 불렀던 환자가 있었다. - 그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으면 언니, 오라버니, 적으면 동생, 이렇게 그냥 가족처럼 부른다. 그들도 누님, 이모처럼 부른다고 한다.

집에서 2, 3시간 떨어진 먼 곳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악취가 심했다. 어쩌다 그의 옆에 나란히 누웠는데 그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았다. “내가 아픈 사람들을 내려다보니 냄새가 났는데 나를 낮추니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겸손이란 걸 알았지. 내 자리를 그 사람들과 똑같이 두니 된 거야.”



박영자씨의 수첩엔 그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이름과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집에 가려면 한참 가야 하는데 가기 전에 화장실 갔다가 가라는 뜻이야. 자기는 죽음이 임박했는데 멀쩡한 나 집에 가다 곤란할까봐 그걸 걱정해주는 거야.”

처음 에이즈 감염인을 돌볼 때는 고민도 많이 했다. 어차피 내 나이도 많으니 에이즈에 걸린다고 해도 한 10년은 있어야 죽을 테니 상관없다 싶어 장갑을 안 끼고 병실에 들어갔다가 의료진에게 주의를 받고 끼기 시작했다.

감염 경로가 지금보다 훨씬 덜 알려진 때 이야기다. 무지가 가장 무서움을 느꼈다.

그는 특이 체질로 주사나 약에 민감하여 쇼크로 쓰러지는 일이 잦았고 지금도 일년에 몇 번은 그런 일로 응급실에 실려 오곤 한다. ‘다 좋은데 왜 에이즈 환자까지 돌봐야 하느냐’는 가족에게 ‘나도 몇번씩 쓰러져 응급실에 가지 않느냐, 나도 똑같은 처지 아니냐’ 하니 이제 다들 그의 일을 마음으로도 인정한다.

>> 여생을 에이즈 감염인들을 위해 보내고파

그는 세브란스 간호대학에서 실시한 연수로 하와이 대학에 홈케어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녀왔고 중국에서도 교육을 받고 왔다.

굳이 힘든 이 일을 하는 건 왜일까. 돈도 많이 벌어 조금이라도 편한 생활을 하고 싶지 않을까. 그는 이제 다 키운 자식들에게 말한다. “내가 만약 너희 아버지보다 오래 살게 된다면 여생을 에이즈 환자를 위해 살고 싶다”고.

힘이 된다면 마당 넓은 방 몇칸 짜리 집에서

에이즈 감염인들이 마음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하고 싶다. 자신의 것을 갖고 싶지는 않을까. 그는 이 세상에 완전히 내 것이란 없다고 말한다.

어느 날, ‘봉래 언니’를 돌보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말도 못할 만큼 죽음이 가까운 그 사람이 박영자 씨를 손짓 하더라. 화장실을 가리키며, “집에 가려면 한참 가야 하는데 가기 전에 화장실 갔다가 가라는 뜻이야. 자기는 죽음이 임박했는데 멀쩡한 나 집에 가다 곤란할까봐 그걸 걱정해주는 거야.”

이제 그는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는지 자신 있게 말한다. 그들의 사랑 때문에 한다고. 내가 집에 가나 화장실 가고 싶을까봐 걱정해주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일을 한다고.

김소라 레드리본 기자